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

김 활 란
(경희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사정을 보면 각 지역별로 평생교육으로서의 교육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주요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¹⁾. 2013년도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의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438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의 모든 지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관이 1개소 이상은 분포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각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사업 중에는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평생교육으로서의 일본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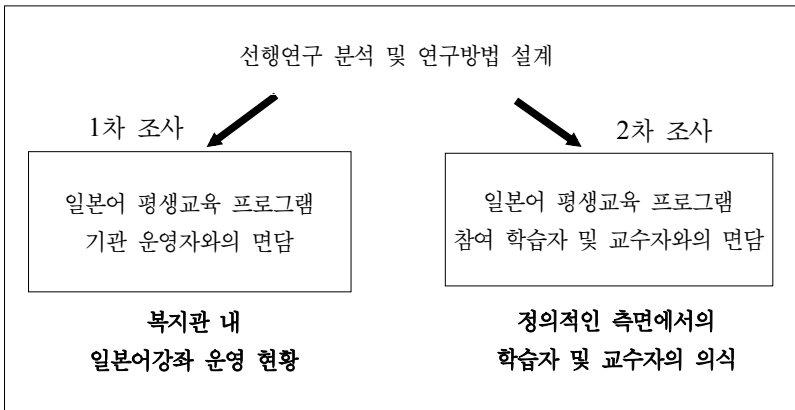
1) 최동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주로 지방에 소재하는 사회기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조사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국에 있는 총 438군데 사회복지관 중에서도 지역별로 가장 높은 분포비율을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형식교육이 아닌 사회인 및 성인층을 위한 비형식교육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는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로서, 교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평생교육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천하는 일본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1>은 연구자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위해, 총 2회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연구 과정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그림1> 본 연구 주제의 연구진행 흐름도



II. 선행연구 분석

평생교육의 의미는 용어 자체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듯이, 한 인간의 삶 전체와 교육을 관련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사회교육(social education)과 동의어로 인식되어 왔는데, 특히 평생교육의 개념은 매우 다양해서 사회교육이나 생애교육, 계속교육, 비형식교육, 성인교육, 순환교육과 같은 유사한 용어들과도 관련되어 있다²⁾.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은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욕구를 기존의 교육체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특성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갖고 있다³⁾.

평생교육이 발전해 온 배경을 보면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학문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유아 및 청년기에 교육기회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이념의 제창과 함께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었고, 실천으로서의 평생교육 활동이 늘고 있다⁴⁾⁵⁾.

한편,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국가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9년도에 28%, 2010년도에는 30.5%, 2011년에는 형식교육⁶⁾이 4.2%, 비형식교육이 30.1%로 합계 34.1%라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⁸⁾. 비형식교육은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 및 강좌를 통해

2) 배장오, 『평생교육개론』, 서현사, 2009

3) 김신일,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법문사, 1983

4) 2000.3.31 시행

5) 안우환, 『평생교육의 쟁점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6)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형식교육이라고 한다.

7)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통계자료』, 2011

8) 박현희, 「교사의 평생교육 인식수준이 학교 평생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학습과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 종류로는 기업의 사내교육, 학원 수강, 주민자치센터 및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의,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이 있다⁹⁾.

이러한 평생교육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의 특징은 교육의 시기나 장소, 교육 대상, 교육 체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이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자율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평생교육 참가자들은 현재 본인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데, 이는 현실 지향적이고 실용적이면서 즉시적인 적용 가치를 지니는 교육이 중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시된다. 이는 외재적 성과보다는 내재적 성과를, 학습결과의 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특징도 있다¹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관은 1906년 인보관운동을 시초로, 이미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¹¹⁾. 사회복지관의 정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수행을 하는 대상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다¹²⁾. 이러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인 교육문화사업에는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육, 어르신 여가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최동철¹³⁾은 최근 국가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패

9)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통계자료』, 2011

10) 권이중·이상오,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10

1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12) 송태섭,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3) 최동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러다임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및 시설이 기존의 서비스 형식을 신속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형식이 변화하는 사회와 주민의 욕구에 부적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최필근¹⁴⁾은 경상남도 마산과 창원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정애¹⁵⁾는 울산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인자¹⁶⁾는 삼척시를 중심으로 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역의 교육시설 및 노인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히로세 준코¹⁷⁾는 창원시 일본어평생교육의 현황을 기관의 실무자 및 교사의 진술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영어교육 현황을 보면 정일찬¹⁸⁾이 서울시의 주민자치센터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중국어교육에서는 차윤미¹⁹⁾가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으로서의 중국어교육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를 비롯해 영어 및 중국어교육 분야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외국어 평생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14) 최필근,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일본어 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 조정애,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6) 최인자,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노인 교육 발전 방안 :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7) 히로세 준코, 「창원시 일본어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8) 정일찬, 「서울시 주민자치센터의 영어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9) 차윤미, 「평생교육으로서의 중국어교육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서울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절차

2013년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등록된 「전국사회복지관현황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는 총 438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다²⁰⁾.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시가 22%(98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 지역이 13%(59개소), 부산이 12%(53개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25개구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총 98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1>은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시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목록이다. 구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정리했다.

본 연구자가 면담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여, 조사할 내용이 본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1명과 일반어교육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본 조사에 사용할 면담 항목은 <표 2>의 구성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목록

구별	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농인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수유종합사회복지관

2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지역별로 분포하는 총 438개소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곳은 총 4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구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마들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작구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구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표 2〉 본 연구의 면담조사 항목

구분	설문 조사 항목
일본어강좌의 운영실태	일본어강좌의 개설 여부
	일본어강좌의 교육 대상자
	일본어강좌의 교육 비용
	일본어강좌의 수업시수 및 개설 기간
	일본어강좌의 교육수준 및 내용
일본어강좌의 교육환경	일본어강좌 운영상의 어려운 점
	일본어강좌 운영상의 개선점
	일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연구 기간

2013년 6월~2014년 4월

3. 조사 방법

먼저, 서울시에 소재하는 총 9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이용한 인터뷰 조사방법으로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서울시 소재 총 98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현재 일본어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총 21개소의 복지관에 근무하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21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시, 모든 내용은 동시 녹음되었고, MS Word로 내용을 전사한 후,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키워드별 카테고리로 세분화하고 그래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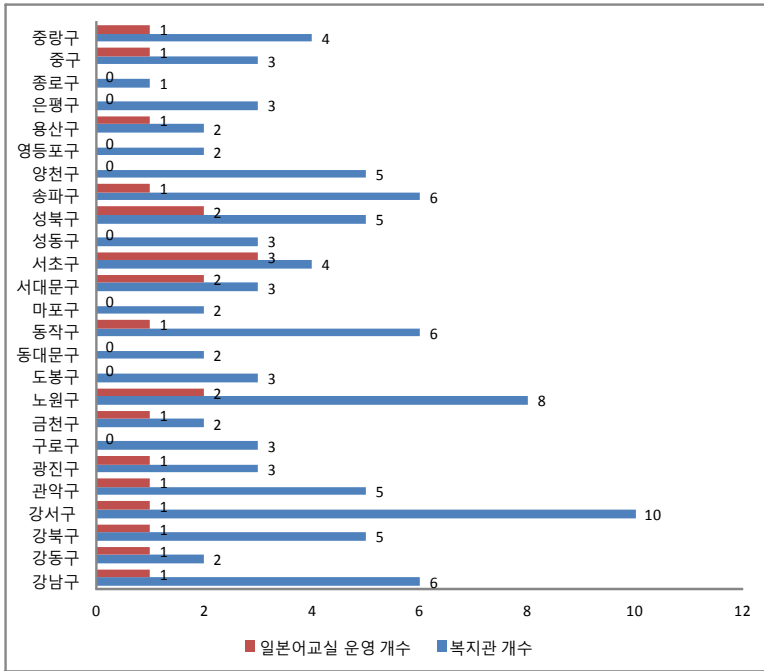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의 분포 현황

현재 서울시 25개구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복지관이 분포된 곳은 강서구로,

총 10개소가 소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노원구가 총 8개소, 송파구와 동작구, 강남구가 각각 6개소씩 분포하고 있었다.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로, 1개소만 소재하고 있었다.

<그래프1> 각 구별 종합사회복지관 분포 및 일본어강좌 운영 현황



2. 일본어강좌의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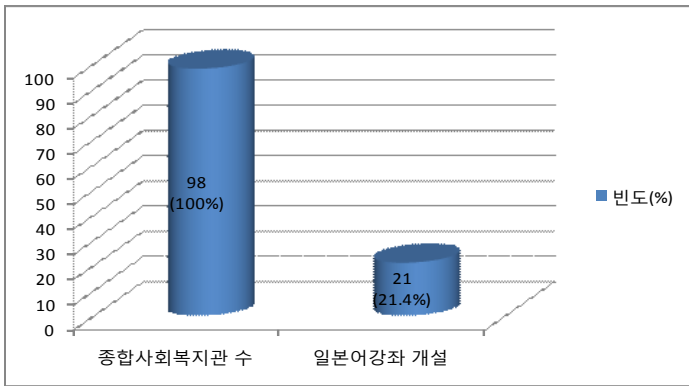
1) 일본어 강좌의 개설 여부

서울시에 소재한 총 98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21.4%에 해당하는 총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2> 참조).

각 구별로 일본어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분포도는 상기의 <그래프1>에 제시하였다. 일본어강좌가 가장 많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곳

은 서초구로, 총 3개소의 복지관에서 일본어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는 성북구와 서대문구, 노원구가 각각 2군데씩 있었다. 일본어교육을 실시하
 고 있지 않은 곳은 종로구, 은평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마포구, 동대문
 구, 도봉구, 구로구로 총 9군데였다. 그래프상의 일본어교실 운영개수에서 0
 이라는 수치를 보이는 곳이다.

〈그래프2〉 일본어강좌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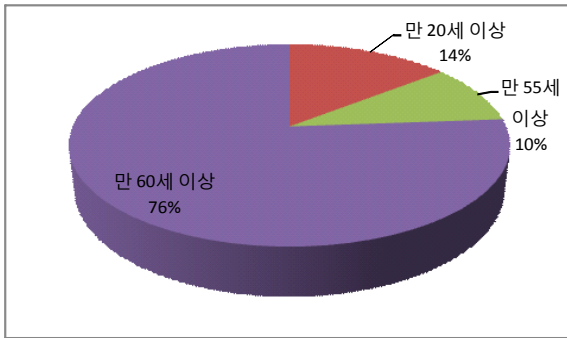


2) 일본어강좌의 교육 대상자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자는 전부 성인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고령자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개소
 중 약 76%의 비율을 차지하는 16개소의 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만 60세 이하는 이 일본어강좌에 참여할 수가 없다.
 또한, 만 55세 이상인 곳도 2개소 있었다.

반면, 만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3군데에 머물렀
 는데, 결과적으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강좌의 운영비율이 약 86%
 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개설된 일본어강좌 운영은
 주로 고령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교실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실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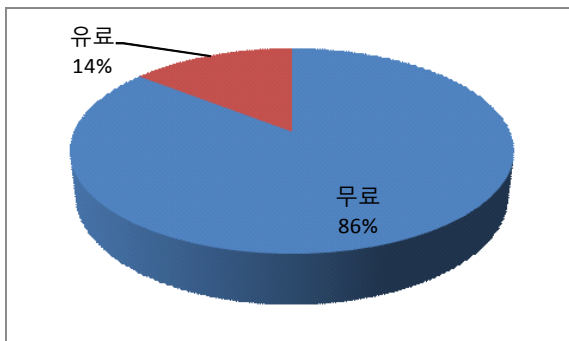
〈그래프3〉 복지관 내 일본어강좌 수강이 가능한 연령층



3) 일본어강좌의 교육비용

총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과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이 3군데에 불과했다(<표3> 참조). 일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이 3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18개소의 복지관에서는 대부분 특화사업으로서 서울시와 각 지역 내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다. 즉, 고령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연회비 또는 교재 구입비용만 수강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수강료 자체는 무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4> 일본어강좌의 교육비용



<표 3>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어강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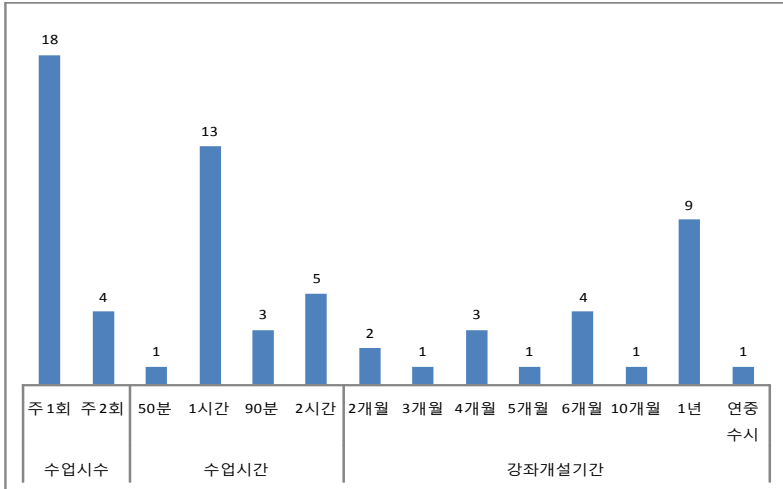
복지관	비용	수업 시수 및 강좌개설 기간	일본어 강좌명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3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월) • 2시간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일본어
양재종합사회복지관	9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 2시간 •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라가나 왕초보(입문) : 일본어 히라가나부터 • 일본어회화(초급) : 기초회화 및 기초문법(문법 30%, 회화 70%) • 일본어회화(중급) : 어휘공부, 일본 뉴스, 쉬운 단어로 프리토킹
반포종합사회복지관	88,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월, 수) • 1시간 • 2개월 /1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어기초 • 일어회화 중급 • 일어회화 고급 • 기본문법, 간단한 회화, JPT

4) 일본어강좌의 수업시수 및 개설기간

일본어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경우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교육기간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실제 그래프상에 제시한 기간보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기존 수강생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일본어를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같은 강좌를 반복해서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특이한 사례로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매주 1회 50분간 무료로 일본어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인 일본어강사의 지도 하에 연중 수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프5〉 일본어강좌 수업시수 및 개설기간



5) 일본어강좌의 교육수준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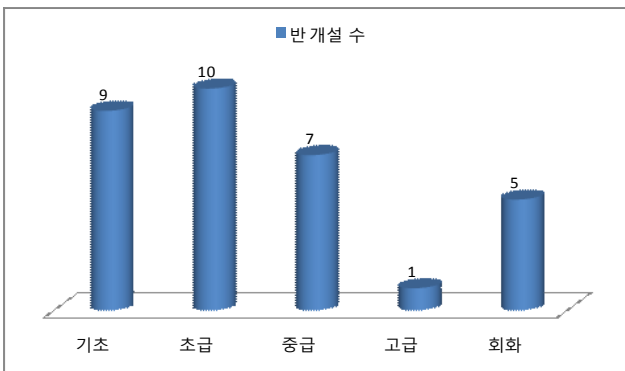
총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내의 건물 안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일본어강의를 하고 있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일본어강좌는 대부분 일본어 기초단계 및 회화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과거에 일본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어 고급문법이나 문형을 학습하는 중급 및 고급 수준의 일본어강좌 수가 적고, 주로 쉬운 일본어회화 수준의 초급반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즉, 기관에서 수강생의 일본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일본어학습이 가능한 반 개설을 해야 하는데, 현재 체계적인 반 개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별에 맞게 ‘일어회화 중급’과 ‘일어회화 고급’으로 나누어, JPT수준의 일본어 문법 습득 및 독해력,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일본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글로벌시대 필수 어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히라가나

왕초보 입문과정부터 시작해, 일본어회화 초급반과 일본어회화 중급반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만 20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는 프로그램별로 수준별 제시가 공지되어 있어서, 학습자가 사전에 본인에게 맞는 일본어반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프6〉 종합사회복지관 내 개설된 일본어강좌 수준



3.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환경

1) 일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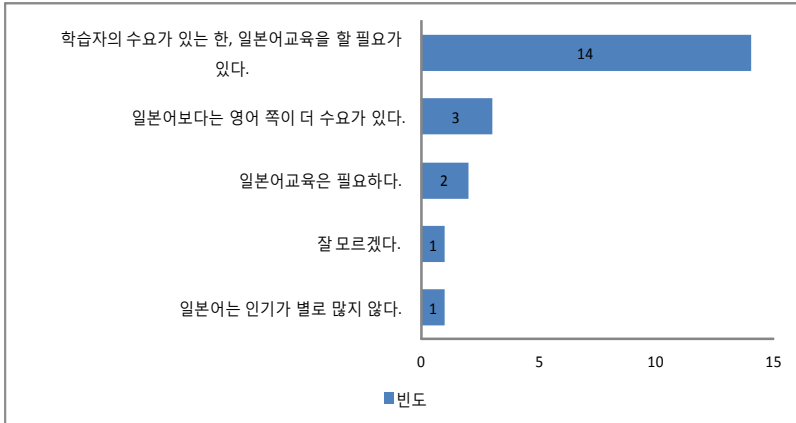
현재, 일본어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총 21개소의 복지관에 근무하는 일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21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래프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과반이 넘는 67%(14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학습자의 수요가 있는 한 일본어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복지관은 중점적으로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령의 노인분을 위한 일본어강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

반면, 그 중에는 최근 수강생의 연령이 점점 젊어지면서 ‘일본어보다는 영어 쪽이 더 수요가 있다’는 의견(3명)과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일본

어강좌가 인기가 별로 많지 않다’(1명)는 의견도 보였다.

〈그래프7〉 일본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n=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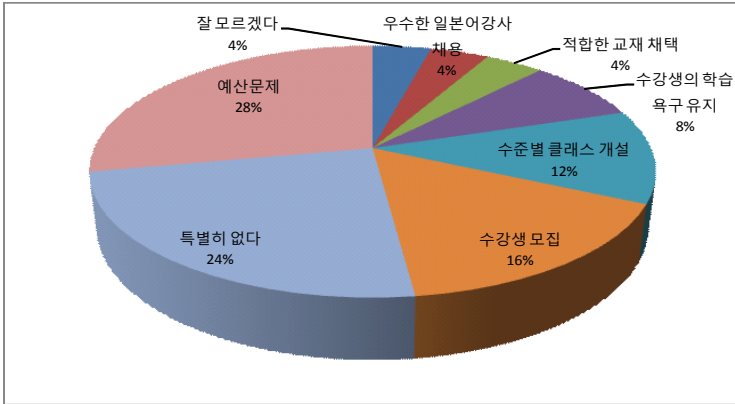


2) 일본어강좌 운영상의 어려운 점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21명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어강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인 예산비용 마련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수강생 모집’(16%), ‘학습자의 수준별에 맞는 클래스 개설’(12%), ‘수강생의 학습욕구 유지’(8%), ‘노인층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재 채택’(4%), ‘우수한 일본어 강사 채용’(4%) 등 일본어 학습 환경 및 강좌 유지에 필요한 여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래프8> 참조).

〈그래프8〉 일본어강좌 운영상의 어려운 점(n=21)



아래는 응답자와의 면담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복지관에서 제대로 된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실 학원에는 원어민 강사도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도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좋은 강사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드는 예산 지원도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내에서 양질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려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출하거나, 아니면 수강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비를 별도로 받아서 강사비로 지출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A복지관과의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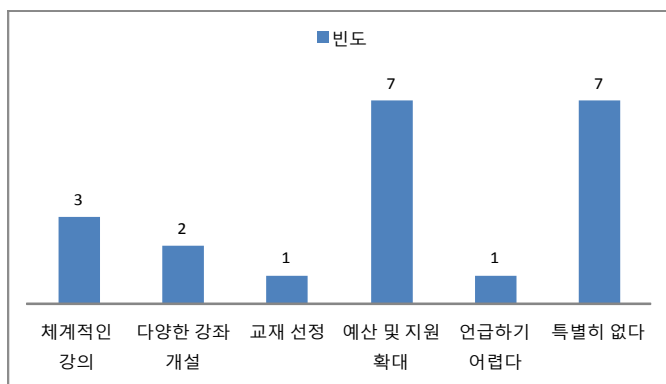
한번 일본어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해서 수강하는 분과 새로 들어오는 분들 사이에서 수준 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준에 맞게 반을 여러 개 개설하기를 바라시는데, 복지관의 여건 상 많은 반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한 반에서 일본어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B복지관과의 면담)

3) 일본어강좌 운영상의 개선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21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내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어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및 지원의 확대’와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동비율인 33%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체계적인 강의’(14%),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강좌 개설’(10%),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 선정’(5%) 등과 같은 항목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9> 참조).

<그래프9> 일본어강좌 운영상의 개선점(n=21)



아래는 응답자와의 면담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에만 정체된 일본어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준별로 소그룹으로 분반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집단으로만 수업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어요. 현재, 우리 복지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이 아닌, 노인분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어르신들로부터의 니즈만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강좌 개설은 아직 계획상에 없습니다. (B복지관과의 면담)

어르신 중심의 교재가 없다보니 마땅한 교재를 선정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강사분도 이분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책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재가 많아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재가 없다시피 합니다. 할 수 없이 똑같은 강좌를 여러 번 듣는 분도 있습니다. (C복지관과의 면담)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평생교육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천하는 일본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서울시 소재한 총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일본어강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서울시 소재 총 98군데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21.4%에 해당하는 총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본어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자에는 연소자가 없었으며, 전부 만 20세 이상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21개소 중에 약 76%의 비율을 차지하는 16개소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즉,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강좌의 비율이 약 86%에나 달했다. 이는 주로 고령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실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일본어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특화사업의 취지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 노인에게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교양강좌 등의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역량(Empowerment)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길음종합사회복지관, www.guswc.org/), 즉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평생교

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외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향후 서울시 지역의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의 상승과 더불어, 서울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소자 및 만 20세 이상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많은 만큼,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복지관 내 교육문화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수요 조사 및 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셋째, 총 2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만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3개소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8개소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노인층 대상의 일본어강좌는 대부분 일본어 기초단계 및 회화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단점으로는 일본어강좌가 주로 기초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매번 똑같은 수업구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고령자 학습자의 일본어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테스트 기준이나 도구 등 적절한 평가도구나 교재 등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만큼, 기관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일본어학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반 개설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지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관해서는, 과반이 넘는 67%(14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학습자의 수요가 있는 한 일본어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예산 비용 마련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4%에 이르렀다. 그밖에도 일본어 학습 환경 및 강좌 유지에 필요한 여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적인 면에서나 심리적인 학습동기 및 욕구 등에서 일반

성인 학습자와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학습자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하여, 고령자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내 일본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본어강좌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및 지원의 확대’와 ‘특별히 개선해야 할 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도 ‘체계적인 강의’(14%),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강좌 개설’(10%),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 선정’(5%) 등과 같은 항목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본 면담조사에 응한 사회복지사들은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어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안과 정보 및 전문지식의 습득, 경제적인 문제 해결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어교육 전문가 및 노인교육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연구과제로는 해당 종합사회복지관 내 일본어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내 일본어 학습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의식을 정의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정희, 「일본어 교육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권이중·이상오,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10.
- 김신일,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법문사, 1983.
- 김중서,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9.
- 김희연,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일본어 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현희, 「교사의 평생교육 인식수준이 학교 평생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배장오, 『평생교육개론』, 서현사, 2009.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006.
- 송태섭,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안우환, 『평생교육의 쟁점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6.
- 안정미, 「평생교육의 운영현황과 활성화방안」,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시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전가양, 「부산지역 사회교육원에서의 일본어교육 현황 분석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일찬, 「서울시 주민자치센터의 영어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조정애,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일본어교육의 활성화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차윤미, 「평생교육으로서의 중국어교육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 서울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최동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인자,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노인 교육 발전 방안 :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필곤,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일본어 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336 비교문화연구 제35집 (2014. 6.)

히로세 준코 「창원시 일본어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and Improvement for
Japanese Language Continuing Education
- Focused on Social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

Kim, Hwal 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ctual operation condition of Japanese lecture based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located in Seoul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 terms of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markable point was that a majority of Japanese lecture courses are highly focused on the elderly and 86% of the welfare organizations are providing free education.

Regarding the effect of specialized business for the aged run by social welfare community center, it says, as Korea changing to aging society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it has put focus on strengthening personal competences of seniors throug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recreational activity programs and culture classes. It means foreign language classes are operating as on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reinforcement of individual capability. Considering this tendency, it is expected that the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 in Seoul will be raised. So, systematic improvements will be needed for this.

First,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Educational and Cultural Industry and work hard to make it public so it could be invigorated and utilized by people usefully at the same time.

Second, Japanese language training that mostly 55-year-old or more than 60-year-old people receive at the welfare center needs to be systematized for preparations on proper studying environment which provides the older with appropriate education method and content as well.

Third, stable and systematic operation should be available through the link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elderly education.

Fourth,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s needed, which is able to satisfy one's desires for learning. Hence, targeting Japanese learners at each welfare center, we need to know the estimation of satisfaction degree and consciousness on learning Japanese.

Finally, it has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regarding the instructors on teaching Japanese language in this paper,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most of social welfare centers, where Japanese language lectures are provided, are run by volunteers who can teach Japanese. Thus, the study on actual condition for Japanese language instructors will be conducted as well later on.

Key Words

평생교육, 일본어 교육, 종합사회복지관, 실태조사, 질적연구

Lifelong Educatio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Social Welfare Center, Study on Actual Condition, Qualitative Research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